

자유지주의적 코뮌주의자의 조직적 강령 - 영역자들의 서문

(2)

흑적기

역사적 도입

네스토르 마흐노와 표트르 아르시노프는 파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망명한 ана키스트들과 함께 1925년, 훌륭한 격월간지 「디엘로 트루다Dielo Trouda」를 출간했다. 「디엘로 트루다」는 ана키즘적 코뮌주의 이론에 근간한 질 높은 비평지였다. 수년 전에 이들이 모스크바의 뷰티르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때, 그들은 이 평론지에 대한 생각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제야 그것을 실현시켰다. 마흐노는 3년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기사를 썼다. 1926년에 이 그룹에는 그 직전에 러시아에서 탈출한 아이다멧(『크론슈타트 코뮌』의 저자)이 합류했다. 그 해에 그들은 『조직적 강령』을 출판했다.

『강령』이 출판되자, 그 문건은 국제 ана키스트 운동의 분노와 매도를 맞이해야 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은 러시아 ана키스트인 볼린(당시 역시 프랑스에 있었고, 세바스티앙 포레와 ‘합테제’를 공동으로 창시하여 ана키즘적 코뮌주의, ана키즘적 조합주의, 개인주의적 ана키즘을 통합하고자 하고 있었다.)이었다. 몰리 스타이머, 플레신 등도 『강령』에 반발하여 “아나키즘을 계급의 이론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ана키즘을 단일한 관점으로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하는 답문을 작성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디엘로 트루다」는 1927년 2월 5일, ‘국제 총회’에의 초대장을 발송했고, 같은 달 12일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사전회의에는 「디엘로 트루다」 외에도 프랑스 청년 ана키스트의 대변인인 오데온, 불가리아인 파벨, 폴란드 ана키스트 그룹의 란코, 오로본 페르난데스, 카르보, 히바넬 등의 스페인 투사들, 이탈리아인 우고 페델리, 중국인 첸, 프랑스인 도플랭-모니에르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첫 회의는 파리의 한 카페의 작은 뒷방에서 개최되었다.

임시 회의체가 준비되었다. 이 회의체는 마흐노, 첸, 란코로 구성되었다. 2월 22일에는 모든 ана키스트 그룹들에 회람이 발송되었다. 국제 총회는 1927년 4월 20일, 파리 근교 라이레로즈의 레로즈 극장에서 열렸다.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비폴치, 「펜시예로 이 볼론타Pensiero e Volonta」지를 대표하는 루이지 파브리와 카밀로 베르네리와 우고 페델리가 『강령』을 지지했다. 프랑스의 두 대표자인 오데온과 세베린 페란델 역시 『강령』을 지지했다.

이곳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제안되었다.

1. 계급투쟁이 ана키스트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임을 인지한다.

1. ана키즘적 코뮌주의가 운동의 근간임을 인지한다.

1. 조합주의가 투쟁의 주된 방법론이어야 함을 인지한다.

1. 이데올로기적, 전술적 단결과 집단적 책임에 근거한 ‘아나키스트 총동맹’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1. 사회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 계획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오랜 토론 끝에 최초의 제안에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회의장에 나타나 모든 참가자를 체포하면서 어떠한 것도 완성되지 못했다. 마흐노는 추방될 위기에 처했고, 프랑스 아나키스트들의 투쟁이 이를 겨우 막았다. 하지만 ‘혁명적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 국제 연맹’을 위한 제안은 좌절되었고, 총회에 참가한 이들 중 일부는 이것을 더 주장하기를 포기했다.

『강령』을 향한 다른 공격은 파브리, 베르네리, 아나키스트 역사가자인 맥스 네틀로, 그리고 유명한 이탈리아 아나키스트 말라테스타에 의해 이루어졌다. 「디엘로 트루다」는 이 공격에 대해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에게 답함』과, 1929년 아르시노프가 저술한 『강령』에 대한 선언으로 대응했다. 아르시노프는 『강령』에 대한 반응에 실망했고, 1933년 소련으로 돌아갔다. 그는 스탈린의 대숙청 중, ‘러시아에서 아나키즘을 복구하려 시도’하였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었고, 1937년 처형되었다.

『강령』은 국제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강령』은 일부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에서는 분열과 융합의 끝에 『강령』을 따르는 “강령주의자”들이 간헐적으로 주요 아나키스트 조직을 통제하곤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조직에서 밀려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했다. 이탈리아에서 『강령』의 지지자들은 작은 ‘이탈리아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연합Unione Anarco Comunista Italiana’을 건설했지만, 곧 붕괴했다. 불가리아에서는 조직을 두고 벌어진 논쟁 끝에 불가리아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연방F.A.C.B.이 “공고한 강령” 위에, “연구하고 조직적인 아나키스트 조직을 위해”, “자유지의주의적 코뮌주의의 원칙과 전술로 건설”되었다. 하지만 강경한 “강령주의자”들은 이 조직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그들의 주간 ‘프루포당Prouboujdane’을 통해 그들을 비난했다. 이 조직 역시 곧 붕괴했다.

폴란드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폴란드 아나키스트 연방Anarchist Federation of Poland (AFP)은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와 국가를 몰아내고, 노동자와 농민의 평의회와 이론적 단결에 근간한 조직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들은 『강령』이 권위주의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스페인에서는 후안 고메스 카사스가 『아나키스트 조직 - F.A.I.의 역사』에서 말한 것처럼 “스페인의 아나키즘은 인터내셔널이 최초에 스페인에 도달한 날부터 어떻게 영향력을 확보하고 강화할 지를 고민했다.” 스페인 아나키스트들은 당시에 고립을 탈출하는 것이나 불세비키와 경쟁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불세비키의 영향력이 작았다. 『강령』은 스페인 운동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아나키스트 조직인 “이베리아 아나키스트 연방Federacion Anarquista Iberica (F.A.I.)”이 1927년 건설되었을 때, 『강령』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기에 논의되지 못했지만, 의제에는 포함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스페인어 사용 아나키스트 그룹의 서기였던 후안 마누엘 몰리나스는 이후 카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르시노프와 다른 러시아 아나키스트들의 강령은 추방자들의 운동이나 국내의 운동에 아주 작은 영향만을 주었다. 『강령』은 러시아 혁명의 빛 속에서 국제 아나키스트 운동의 성격과 역량을 키워내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오늘날, 우리의 경험 이후에, 나는 『강령』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적었다.

세계대전은 아나키스트 조직의 발전을 방해했다. 하지만 『강령』을 둘러싼 논란은 5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자유지의주의적 코뮌주의자 연방이 창설될 때, 이탈리아에서 프롤레타리아 행동을 위한 아나키스트 그룹이 창설될 때 다시 점화되었다. 두 조직은 모두 『강령』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 경향은 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브리튼 혁명적 아나키스트 조직, 프랑스 혁명적 아나키스트 조직 등의 창설까지 이어졌다.

『강령』은 계급투쟁적 아나키스트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정치적 고립, 빈곤과 혼란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고, 마주한 문제의 답을 찾는 데에 있어 여전히 소중한 역사적 참고자료로 남아있다.

닉 히스, 1989

2001년의 추가사항

베를린 장벽 붕괴의 여파로 촉발된 아나키즘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강령』은 신新 아나키즘에서 반조직적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룹과 개인들에게 다시금 중요한 문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1년 2월, 『강령』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다. 『강령』은 터키어, 폴란드어, 스웨덴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었다. 동유럽에서는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하고, 남아메리카에서는 『강령』이라는 역사적 문건이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강령』이 ‘재발명’되고 있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우루과이, 레바논, 스위스, 영국, 폴란드, 아일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캐나다, 체코의 아나키스트 그룹들은 그들의 조직방법론을 『강령』을 기초로 두고 있다.

앤드류 플러드